



濁流清論

제56호 2019년 3월 15일(금)

발행인: 김 상 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 (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신임의장 인사말

-아주대학교의 황금시대를 그리며

1

신임교원 소개

- 2018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소개

- 2019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소개

3

특집

1. 체계적이고 통일된 유학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아주대학교에서의 한 학기:

두 유럽 교환 학생의 소감

10

교수들의 건강칼럼

잊혀진 병, 결핵

19

소식

교수 정기총회 개최

20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아주대학교의 황금시대를 그리며

전자공학과 김 상 배

1977년 4월 20일, 그 날은 아주대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맑고 따스한 봄날 오전, 모든 아주인들은 새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러 노천극장으로 모여들었다. 대우학원의 설립과 함께 첫 학장으로 부임하시는 이한빈 박사님의 취임식에 참석하려 함이었다.

취임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학에 담긴 도전, 이 도전에 처한 아주공대의 가능성, 산학협동과 국제대학으로의 발돋움이라는 과제를 성취하려는 전략, 그리고 아주공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의 순서로 이어졌다. 우선, 급속도로 이루어질 공업화와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국제화된 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적인 프랑스와 거대기업군인 대우그룹이 지원하는 아주공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두 지원 축을 활용하여 국제화와 산학협동의 모델 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엔지니어 매니저라는 인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취임사는 그대로 실천전략이 되었다. 첫 방침은, 학장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재단과의 약속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김덕중 총장 부임 전까지 학교와 재단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새 학장의 취임과 함께 아주공대의 변화는 눈부시게 이루어졌다. 우수 교수진의 확보가 시작되었다.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 중이던 많은 분들을 교수로 초빙하였고, 장기적인 교수 확보를 위하여 교수요원을 프랑스에 파견하였다.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장학생 제도가 1978

2페이지에 계속

년부터 시행되었고, 경기도 내 우수 학생을 지역내신 제로 선발하는 제도도 시행되었다.

개교 당시부터 철저히 이어져 오던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주요 과목에 연습시간이 도입되었다. 강의식 수업 후에 30여 명 단위로 반을 나누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는 연습시간이 운영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강의실에 칠판이 앞뒤로 설치되었다. 또 실험 실습이 강조되어 매 학기 2과목이 배정되었으며, 설비도 프랑스에서 도입된 최신의 것들이었다.

취임사에서 밝힌 산학협동 방안은 산업체-학교 사이의 인적 교류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실천되어 학교에는 종합연구소가 세워지고 3학년들의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다.

학교체제도 외국어에 능한 엔지니어-매니저의 양성이라는 인재상에 맞추어 변모하였다. 공업경영,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의 4 학과 체제에 경영학과가 추가되었고 영어과와 불어과가 신설되었다. 영어과와 불어과의 신설로 우수 교수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장기적인 외국어 교육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도 이루어졌다. 우수 재학생의 프랑스 파견 교육도 이루어졌다.

소수정예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건물과 대지의 확장은 적었지만, 기숙사가 증설되었고 전체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학교의 미래를 기획하려는 의도에서 학사담당 부학장과 함께 기획담당 부학장 제도가 마련되었다. 교무와 학생 위주의 기존 학사행정에 기획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미래와 창조의 표상이었던 이한빈 학장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의 성과는 놀라웠다. 1979년에 이루어진 문교부의 공과대학 평가에서 1위에 올라섰다. 대우학원 출범 4년이 되던 1981학년도 지응업 학장 서리 입학식사에 따르면, 교수대 학

생 비율 25:1이 달성되었고 신입생은 상위 5%의 학생들이었다. 그 당시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KAIST 입학생의 수였는데, 서울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1980학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이 53.8%, 재단 전입금이 41.4%, 기타 4.8%였다. 모든 면에서 아주대학교의 현재 모습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주대학교의 쇠락은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왔다.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의 실종에 있었다. 1979년 12월, 아주의 급성장을 이끈 이한빈 학장의 부총리로 입각으로 학교발전의 구심점을 잃게 된 것이다. 재단의 지원도 줄어들었다. 이에 맞추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였기에 소수정예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1981년에는 종합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많은 혁신적 교육체제들이 붕괴되었다. 거기에 더해 아주공대의 혁신적 발전에 자극을 받은 타 대학들이 경쟁의 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 무풍지대였던 대학들에 아주공대에서 시작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특별장학생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도 위기가 시작되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리더십과 재정의 위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조성되었던 건전한 학풍은 오늘날까지도 아주대 학교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40여 년 전의 황금기를 되돌아보면 좋은 사립대학의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재단이다. 재정적 안정성과 대학경영 전문가로서의 총장 재량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총장의 리더십과 비전이다. 우리는 그 예를 우리대학의 황금기를 이끈 이

한빈 학장에서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 시스템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재 양성에 있는 만큼 그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맞는 인재상을 확립하고 공유하면서 그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교육 체제와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이다. 연구를 지속하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면 우수한 학생

들은 절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좋은 대학의 조건이란 미래를 기준으로 보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총장은 총장대로, 교수진은 교수진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대학으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듯, 황금기의 아주대학교는 좋은 대학의 전형이었다. 4년이 더 지나 2023년의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는다.

신임교원
인사말

신임교원 소개(2018년 2학기 / 2019년 1학기 가나다순)

소프트웨어학과 김 상 훈

저는 학부, 박사를 KAIST에서 받고, Virginia Tech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지내다 지난 9월에 소프트웨어학과로 조인 하였습니다. 학부를 다닐 때 까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학업에 집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연구에서 재미를 찾아 다시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입니다.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이고요, 특히 메모리 시스템, SSD, 파일 시스템 등의 스토리지 시스템, 분산 시스템 등 입니다. 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인 운영체제와 컴퓨터구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실사구시 이념에 잘 맞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실력 있고 바른 학생들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리학과 김 지 윤

안녕하세요. 2018년 2학기에 심리학과에 임용된 김지윤입니다. 무엇보다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드리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사회심리학 세부전공으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본교에 오기 전에는 싱가포르의 Yale-NUS College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이 자아 개념과 목표 추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입니다. 암묵적 이론이란 특정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믿음과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암묵적 이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암묵적 이론은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 또는 기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개입에 따른 암묵적 이론의 변화와 그 개입이 목표 추구 과정과 방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구상해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학과 빈 범 호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연히도 꿈에 그리며,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아주대학교에 오게 되어,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꿈이면 안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생명과학과와 화장품과학과를 맡게 된 빈범호입니다. 먼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많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일본에서 마치면서,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0년 12월 1일, -20도에 가까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부터 한국에 들어와 화장품 회사에서 7.5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인체 미네랄 밸런스 연구, 몇몇 유전병들의 발병 메커니즘 규명, 미백 및 항노화 물질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항노화 연구실 / 화장품 과학 연구실을 꾸미는 단계입니다.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교수가 되어도 되는가? 다른 교수님들처럼 잘 할 수 있을까? 한국말을 원래부터 잘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데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연구비는 딸 수 있을까? 텅 빈 실험실에 연구 기기들을 어떻게 다 모으지? 정말 잠이 안 오고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화이팅을 외치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같이 노력하여 교수님들처럼 훌륭한 교육자이자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대와 인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이 병 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가을학기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병호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2011년 미국 Ann Arbor 소재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과에서 중국사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후 2014년까지 홍콩과학기술대(HKUST)에서 Lecturer 등으로 재직하면서 근현대 중국사회를 연구 및 강의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아주대학교 부임 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 연말에 귀국한 이래로, 첫 직장부터 두 번째 직장인 아주대학교까지 이렇게 수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그리고 한국의 도시 및 지역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인구, 가족, 정체성, 삶의 질, 근현대 중국사회이며, 연구방법에 있어 비교역사연구, 사회조사연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시도를 접목해 상기한 주제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선배 교수님들처럼 좋은 교육자이자 동시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들 인생의 방향과 경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수가 가진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선배교수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공학과 장 지 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에 임용된 경영대학 금융공학과 장지원입니다. 지면을 통해서라도 아주대학교 전체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 2월 KAIST 경영대학에서 재무금융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학부과정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으며 학부 졸업 직후 4년간 한국은행에 근무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이후에는 조선대학교 경영학부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학기 아주대학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관심분야는 투자론 및 자산가격결정 분야이며, 지금까지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위험이나 수익률 분포의 왜도 및 첨도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 등이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차익거래가 제한되는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의 가격결정 요인과 시장 이상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온지 이미 한 학기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학교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좋은 교육자이자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한 상 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대학 사학과 한상준입니다. 2018년에 임용되어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탁류청론 지면을 통해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 아주대 사학과에 입학하여 1999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군에 입대했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진학하여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난 2017년 여름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주제는 1950년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 중국의 외교사 및 대외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사와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등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저는 모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려 합니다. 아주대학교 모든 교수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김 하 연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신임 교원 김하연 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의학부 졸업,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마취과 전공의를 하였고, 이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임의 동안 외과계 중환자실, 심혈관 마취, 이식 마취를 수련하였습니다. 2년의 전임의 수련 후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돌아와서 1년간 임상전임강사로 재직하며 이식 마취, 부위 마취를 담당하였고 2018년 3월부터 아주대 병원 진료조교수에 이어 이번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전문의 이후 제 수련 분야처럼 저는 중증 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식 마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 이식 수술에서의 안정적인 마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식 마취를 접하면서 장기 공여자의 관리에도 관심이 생겼으며, 장기 공여자의 수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해 연구를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꿈꿔 왔던 전임교원 자리에 서게 되니 설레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주대 병원 일원으로서 진료, 연구,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손 혜 민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신입 조교수 손혜민입니다. 이렇게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저는 인제대의 학사, 서울의대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강사, 진료전문의, 진료조교수를 거쳤습니다.

진료영역으로는 부위마취, 뇌신경마취를 위주로 심폐마취, 산과마취, 외래마취, 어려운 기도 관리, 응급외상환자 마취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노력해서 발전시켜온 임상 마취관리 능력 및 공부가, 세부전공인 외상마취 및 부위마취 전임교원으로서 적합하도록 잘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와 권역외상센터가 더욱 발전하는 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하고도 씩씩하게 학문과 임상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의사와 연구자가 되도록 애쓰며, 여러 교수님들께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얻고, 후배, 제자, 동료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요즘 대중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어린이에게 전신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지나요?’라는 질문과 관련된 마취제의 뇌신경독성과 신경보호작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마취와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통증의 감소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마취 전후 의식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뵈 때는 더욱 정진 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좋은 임상의로서 찾아 뵙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 재 용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신재용 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제 관심 연구분야는 헬스케어 시스템 효율성 제고입니다. 거시적으로 보건경제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연구, 미시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장치(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정과 적용 방안에 대한 실험 연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후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의료정책전공)를 취득하였고, 2년간 미국 Cornell University, Policy Analysis and Department 에서 보건경제분야 post-doctoral fellow 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료원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에 경제학, 경영학, 수학, 공학 분야의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과 교류하고 같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 설레고,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심있는 교수님들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drshin@aumc.or.kr, 031-219-7455)

불어불문학과 오 윤 미

안녕하세요. 저는 불어불문학과 신입교원 오윤미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 프랑스 리옹 2대학의 Dynamique Du Langage 연구소에서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 언어의 복잡성 (complexity)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2017년부터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New Zealand Institute of Language, Brain and Behaviour 연구소에서 2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부터 아주대의 신입교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량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언어 유형학적인 측면에서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인지언어학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관심 분야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아주대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언어학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유 우 식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부터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신입교원 유우식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마치고, 같은 기관의 일반 흉부 파트에서 2년간의 임상 강사를 마쳤습니다.

일반 흉부 파트는 가슴안의 심장 및 대혈관을 제외한 대부분을 다루는 파트로, 폐, 식도, 종격동, 흉막, 흉벽의 질환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주로는 최소 침습 수술으로 흉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폐암 및 식도암을 수술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랫드를 이용한 폐이식 모델을 셋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폐이식 후 이식된 폐의 손상에 중요한 기전인 허혈-재관류 손상, 급성 및 만성 거부반응을 연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새로 자리 잡는 이 곳 아주대학교에서 이 모델 이용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여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과 윤 창 근

안녕하세요. 2019년 봄학기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된 윤창근입니다.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으나, 여의치 못해 탁류청론의 지면으로나마 우선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이후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와 Texas A&M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후,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2015년 12월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다 이번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에 등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공조직입니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계제(hierarchy)에 기반한 관료제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의 과도기에서 공공조직에 적합한 조직구조에 대한 탐색과 전략적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직 내 여성 대표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표성과 인사시스템의 공정성, 그리고 여성 대표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승진 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율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대학 선배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동료애와 아주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교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가족”과 “아주 사랑”을 제 연구와 교육의 시작과 끝으로 삼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행운으로 알고, 앞으로 행복하고 부지런한 삶을 일궈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학과 이재웅

안녕하세요. 2019년 3월부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재웅입니다.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서 201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도교수: 정현식) 학위 기간 중에는 층상 구조 물질에서 박리 된 다양한 이차원 물질들의 물성을 광학적인 방법, 특히 라만 분광법을 이용해 연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지도교수: 박지웅) 박사 후 연구원 재직 중에는 대면적의 이차원 물질을 합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구조를 제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연구 경험에 기반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구조의 이차원 물질을 합성하고 이들의 물성을 측정하는 광학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실생활에까지 응용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 교수님들을 본받아 배우며 좋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2019년 1학기 건축학과 신입교원 최병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림산업에서 5년 근무하면서 건설 관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후 학계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후 미국 서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 좋은 기회를 얻어 아주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축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관련 참여자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축 프로세스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증적 연구 방법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ICT 기술들을 활용하여 각 참여자들의 행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또 아주대학교 일원으로서 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중앙혈액내과학교실 최용원

안녕하십니까? 중앙혈액내과 신입 교원 최용원이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의료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마친 뒤에, 3년의 군의관 생활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5년 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에서 암, 노화를 연구하시는 임인경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혈액내과 임상 강사로 복귀하여 2년, 진료 조교수로 2년 근무 후에 이번에 조교수 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은 저에게는 간단한 가설 하나 내 손으로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도 무수한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던 값진 시간이었고, 그러한 선배 학자들의 노고도 모른 채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너무나 당연하다 듯이 여겼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폐, 위, 두경부암을 비롯한 진행성 고형암과, 다발 골수종, 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암 환자를 두루 진료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적,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치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많은 말기 암 환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보면서, 비록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임상 경험과 기초 연구 경험이 궁극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 해법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암이라는 큰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진료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암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아주대 의대, 더 나아가 아주대 본교에 계시는 많은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앞으로 더 많이 찾아 뵙고,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최 용 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에 신규 임용된 최용준 입니다. 저는 입학 이후 학부를 거쳐 인턴, 레지던트,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아주대학교에서 마쳤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전임의 및 특임교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골다공증, 갑상선 및 당뇨병 진료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노년병, 그 중에서 특히 골다공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골다공증의 역학,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골과 타 조직과의 연관관계 등 다방면의 골다공증 관련 임상 연구 및 분자 생물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칼슘 대사와 연관된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갑상선암 및 유방암에서의 석회화와 발암기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과 타 조직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날이 더 많았고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그 만큼 뜨겁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는 물론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아주대학교의 큰 디딤돌이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허 민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 교실의 신임 교원으로 임용된 허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니 비로소 제가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병원 인턴을 거쳐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에서 임상 강사, 진료 교수로 재직하며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수술 및 로봇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였습니다. 로봇 수술에 있어서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진료과의 수술을 담당하였기에 이에 관한 마취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 후 발생한 급성 및 만성 신장 손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찾기 위한 연구, 비뇨의학과 수술 및 로봇 수술의 마취에서 효과적인 주술기 환자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술 중 발생한 사망과 연관된 인자를 밝히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자를 편안히 재우고, 다시 온전히 깨우는 일, 곧 수술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마취를 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며, 학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하여 교육, 연구, 진료에 정진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주대에서 마주할 즐거운 인연들을 고대하며 지금의 다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1

체계적이고 통일된 유학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어국문학과 문혜원

교내에서 종종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간간이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것도 보인다. 구체적인 상황은 차이가 있겠지만, 내·외국인 학생들 사이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더불어 생활하는 일이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여행이나 기타 이유로 외국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진 덕분에, 외국인(인)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게다가 재학 중에 교환학생이나 해외 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으로 해외에 다녀오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유학생에 대한 역지사지의 감정 또한 작용할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의 멘토를 자청하여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역으로 영어를 배우기도 한다. 유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니 win-win인 셈이다.

그러나 학교 전체의 상황으로 보면 이처럼 상호적인 관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순조롭게 따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높은 학점을 받기는 힘들다. 상대평가에서 외국인 학생이 평균의 한국 학생보다 높은 학점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학생은 팀플에서 최대의 악조건이다. 유학생이 섞여있는 팀은 발표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유학생은 이름만 올릴 뿐 사실

상 팀플 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팀원들이 유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해주면 동일하게 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여도를 문제 삼을 경우 팀에서 빠지거나 최하 점수를 자청해야 할 수도 있다. 강의 진행상 팀플이 필수일 경우, 팀플 과제의 성적은 언제든지 불만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한국 학생이나 유학생이나 성적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유학생들을 별개의 팀으로 묶거나 팀플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더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나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어국문학과는 상황이 아주 좋은 편이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는 오래 전부터 상당수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이들의 학업 성취도나 취업 현황은 매우 우수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중 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아주 높고, 몇 년간 부대끼며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도 많이 쌓여서, 졸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이 닿고 학문적인 교류를 하며 지낸다. 그 영향 때문인지 유학생에 대한 학과 내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한국 학생들이 수업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해마다 진행되는 학술답사에 유학생들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유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에 남아 취업을 하거나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

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국제학부 한국학전공 주임으로서 바라본 유학생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국제학부 한국학전공은 제1전공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복수/부전공 형태로 모이는 것인 만큼, 아주대 내의 일반적인 유학생의 모습에 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각종 행사, 소학회 활동 등을 통해 만난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었다. 전공이 각각 달라서 친밀감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자원해서 소학회 일을 맡은 회장단 학생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능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소통의 도구로 하여 다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회 참여가 저조하고 참여가 저조한 탓에 활동은 더 위축된다. 국제학부의 지원을 받아 소학회에서 한국어 스터디를 시도해보기도 했으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한국학전공을 복수/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 문제도 시간을 들여 해결해 가야 할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은 교양 단계에서 <한국어 3>, <한국어 4>, <고급한국어독해>, <고급한국어회화> 등을 수강한 후, 전공 필수 교과목인 <한국학 입

문>, <한국사의 이해> 등을 수강하게 된다. 그러나 수강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 교과목은 한국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이상이 되지 못한다. 한국학전공은 점차 심화된 관련 교과목들을 개설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 선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또한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도 학교 여러 부서에서 유학생 유치와 교육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총괄하는 기구 혹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이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학생 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일된 기구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유학생 유치와 관리 외에 체계적인 교육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학생 교육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뚜렷이 하고 그것에 바탕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특집 2

아주대학교에서의 한 학기: 두 유럽 교환 학생의 소감

전자공학과 나 상 신

스무 해 남짓 동안 학기마다 한 과목 정도를 영어로 개설해 왔다. 어떤 학기는 한 학생 정도, 또 어떤 학기는 대여섯 외국 학생들이 수강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 대여섯 교환 학생들이 ‘회로이

론’이나 ‘확률론’ 과목을 수강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어느 학기는 프랑스에서, 어느 학기는 독일에서 온 무더기 학생들로 기억된다.

지난 가을 학기에는 두 과목을 영어로 개설했다.

한 반은 50명 안팎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확률론` 반으로, 한 핀란드 교환 학생이 내국인 학생과 수업을 함께 했다. 다른 한 반은 여남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기술작문` 반으로, 한 독일 교환 학생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반반 섞인 이 반에서 한 학기를 함께 하였다.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 두 학생에게 ‘아주대학교에서의 한 학기’의 소감문을 부탁하였다. 이 학생들이 겪은 한 학기는 매우 대조적이었으며, 아래에 가감 없이 실린 소감문에 잘 드러나 있다.

두 교환 학생의 소감문과 더불어, ‘기술작문’을 함께 수강한 전자공학과 두 학부생과 한 대학원생이 교환 학생 또는 교환학생 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쓴 글을 첨부하였다.

교환 학생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만 강조한다면 아마도 수강 신청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내 과목을 수강한 외국 학생들은, 벨라루스에서 온 한 학생을 빼고는, 모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로 온 교환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전자공학 과목을 수강한 이유는 영어로 개설되는 원하는 전공 과목 수가 부족하고, 또 막상 수강하려고 하니 수강 인원 초과로 수강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수강 신청 기간은 통상 내국인 학생에 비해 나중인데, 수강 신청이 어떤 이유에선가 원활하지 않은 듯했다. 예컨대, 수강 신청을 ‘click war’에 비유하며 수강 경쟁의 치열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실험 컴퓨터 장비 등의 수용 인원 초과로

상당수의 교환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의 여파로 발생하는 비전공 학생들의 상급 전공 과목 수강에 대한, 한 동료 교수의 말이 생각났다. 한 학기에는 전자공학 전공생도 쉽지 않은 과목에 아주 여러 명의 비전공 교환 학생들이 몰려 왔던 적이 있어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교환 학생들의 수요가 큰 과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제도를 더 가다듬어 원활한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학과에서는 과목 개설할 때부터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처는 교무처와 함께, 과목개설 공고 초기부터 외국 학생들의 수강 허용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행은, 개설과목이 확정된 이후에 영어 강의 과목 개설자에게 외국인 수강 허용 인원을 문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수강 신청을 위해 “아무도 쓰지 않는 Internet Explore를 깔아야 했다”는 얘기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으며, 교과목 운영 시스템, 예컨대 아주Bb가, 100% 영문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새겨들었다.

각 소감문을 참조하면, 위에 언급한 개선을 위한 제언뿐 아니라, 이들이 겪은 한 학기의 생생한 체험을 맛볼 수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비록 한두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아주대학교의 국제화 현황에 대한 학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 되기를 바라고 싶다.

Ajou University autumn semester experience -Arttu Ore

I spend this autumn semester as a exchange student in Ajou university and I had alright experience although there was some negatives that really affected my time

at school also. But overall, I didn't enjoy my time in Korea that much. But I will focus on the stuff that are about the University because those are things that you can potentially improve for the future.

Let's start with the positives:

I really loved the buddy system.

13페이지에 계속

Even though I don't care about attending some group activities and parties, stuff that AGA members probably did fantastic job too but I can't really comment on that because I didn't attend, my buddy was really nice towards me and understood that I prefer to spend time by myself and even arranged some coffee meetup with just me and my buddy. That was really nice of her to take her time to do that just because I didn't want to attend group meetings. Overall buddies were helpful whenever I had some question I needed answering.

Campus area is nice and enjoyable to spend time on, I especially liked the sleeping areas at the library because often time I felt like I was sleepy, so I managed to take some rest there when I had time between classes. Usually people would go to their own dormitories but because I lived outside of campus that was no option for me. So it's good to have those resting places there.

During my stay I was often sick so I had to skip classes often due to that, but luckily professors were understanding of it, especially my math professor did go above and beyond to help me manage with my studies and to pass the course.

Then the negatives:

Biggest negative I have that affected my entire stay is the course application period. This really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first of all, exchange students might not realise that there is competition for the course spot, so it should be brought up more. And even if student

was aware of it, the course choosing is just a race of who chooses the courses fastest against other exchange students and other Koreans. There has to be way to ensure that exchange students get their courses otherwise entire semester can be ruined right at the beginning.

My personal experience was that I got 1 out of 6 courses I wanted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so then my only option was to wait until the semester begins and go and talk to professors one by one. Well, I wasn't alone doing this, there was at some classes up to 20 other exchange students asking if we can get to the courses we wanted. We arranged groups to find professors, so our first days of semester were not so enjoyable. Overall, result for me was that I had 5 courses, from which 2 were what I wanted, and other 3 were courses from other majors that I had to take to at least have something to study. Not good.

Second complaint is that the internet is not very good at the campus. It is slow and I experienced connection problems so hopefully there is way to improve that. This is quite important for me because I'm studying software engineering, so it is mandatory to have proper connection. Also get rid of only Internet explorer for applications etc. Nobody uses Internet explorer in my country, so it's frustrating to get it and use it just for the sake of doing something specific. Also make everything available in English as well on the web page and BB etc. Some are in English. but some are not so sometimes it's hard to find some information.

My semester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t Ajou University

– Xhenet Prushi

The Arrival

Due to my visa I arrived later than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information guide that

includes a description of how to go from the airport directly to the university helped me a lot and I had no problems in the beginning. Also it was really helpful and well thought to hand us the address and some phrases in Korean language. I talk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ot picked up from the airport and ac-

cording to them it was well organized and they received a nice welcome.

The Dormitory

I am living in the international dormitory. At first, the accommodation is modern furnished and very clean. Furthermore the security gates at the entrance, the separated floors for female and male and the dormitory inspectors who patrol the whole dorm, are giving me a feeling of safety. I think that is really important because arriving as a complete stranger to a new country always comes along with some fear.

The Buddy Program from A.G.A.

Weeks before coming to South Korea I received a mail from my buddy, who is joining the program, called A.G.A., that supports international students. She introduced herself and offered me her help and friendship. I was really happy about that buddy program. In my first week at the Ajou I met her and we made really good friends. She planned cool activities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things and food. The university and A.G.A. did a great job with organizing events, like partys and movie nights, and offered us amazing and unforgettable experiences as well as an easy start in the semester.

The Lectures

One thing I would improve is that in the beginning students should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 attendance check-in for the lectures. So that you have to hold your ID card before every lecture to sign in for the course. I actually did not know that until I saw some students I have then asked.

I took some normal courses and I took one lecture that was like a seminar. The normal courses were like I am used to in Germany. But it was kind of hard to interact with other students and get in contact with them. For me, the seminar course of Professor Sangsin Na is very special and helped me in so many ways. On the one hand, of course it was very interesting and benefited my knowledge. On the other hand, it really helped me in getting in touch with Korean students. In group workings and discussions I had the chance to talk to them and interact with them. With some I made friends and met them also after lecture. Furthermore, the professor was so nice and even invited us to dinner where we could interact out of the university. I learned many things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got always help when I had some problems. This course was very special to me and I would recommend it to everybody, and especially to every international student, because it was very educational and also helped on a lot in getting settled and progressing personally.

My Opinion & Exchange Student's Opinion About University

-Yewon Kim

<The things that I want Ajou University to be improved.>

In my point of view, first I want Ajou University to increase the English classes. Because it can improve students' English skills and also other foreign students can get mor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clas-

ses in Ajou University. In result, Ajou University must be more famous and international in the world.

Second of all, it would be better to increase the events which students of Ajou and exchange students can join together. I know there are AGA(Ajou Global Ambassador) and Nubi Program that students of Ajou can help exchange and foreign students. I've experienced lots of international events in university like AGA, International Day and AGF(Volunteering in Vietnam) and I think those programs

are really good to get close to foreign friends and be more international students. But those are just for limited students who can speak well in English and who are not afraid to confront foreigners. And I know there are still lots of students want to be close with foreign friends even they are bit shy and hard to say in English. So I think if school made more international event which can lots of students of Ajou and exchange students work together, it would be great. Then students of Ajou will not be afraid of facing foreigners. For example, hold the 'Sports Day' that all student can involve and hang out together. And go volunteer work together. Even students don't know well how to speak in English if they worked together physically, then they would be close together.

Third of all, I think it would be really nice to give student an English class focus on speaking. Because even student who got highest grade at CSAT which is just focused on reading and listening, sometimes they have a hardship to speak with foreigners and be afraid of it. And I think some of student they are just not used to talk with foreigner or shy that' why they can not speak well with foreigners even they have an enough ability. So if students can be provided an English class by university, they become used to speak with foreigners and also get confident to face with them.

Actually, I am satisfied with my university life. Those are just my personal opinions about the things that I want university to be improved. And sometimes when I talked to exchange students, they said they thought all Korean students, who are in university, are good at speaking English before they came to Korea. But they realized it's not true. Some students are using translator to talk to them and it' hard to communicate with them. So they said they were shocked.

So I think in this point, we should try to do something to communicate very well with exchange students. For Ajou University, they try to make various classes speak in English and events which students of Ajou and exchange students can work together and for student ourselves, we should do our best to raise our English skill not just for communicate with foreigners, but also for be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n also it can help to live up to exchange students' expectations.

<What exchange students think about Korea and Ajou University-Interview>

Things about Korea: People are polite and helpful.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even when it's late or holiday. Food is delicious. Mountains are beautiful. Korea is beautiful. What I also like is that you have in almost every Restaurant or outside in the streets internet connection, which could be very convenient for people without internet connection and especially for tourists when they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Furthermore,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well buil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so everyone can easily go from Seoul to Suwon and the best thing about that very cheap.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unfortunately also bad things which I experienced, sometimes there are older people looking at me very angry or in a way as would I be an alien or something else but I guess this is maybe nothing personal its maybe more because they are curious and not used to foreigners. And also the language barriers are sometimes annoying, since before I came to Korea I thought the people would speak English in a way that I can communicate with them but I was wrong sometimes they even do not understand basic English words.

Things about Ajou University: Facilities are good in comparison to my home university like football field and cafeteria. Professors are really kind and good at listening to students and helpful(Especially, pro.Dan), Now let his mention Korean students, some of them are very good in English, but unfortunately some of them also not that good and this is especially hard if there is a presentation to do and we have to work together. This language barriers lead to bad communication between exchange and Korean students.

국제 학생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

-無名(학부생)

국제 학생은 정규 유학생과 교환학생으로 나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의 동일한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환학생의 경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새로운 나라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 학생은 해당 나라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데,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보니 오해가 생겨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와 한국 학생들은 국제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본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한국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멘토링 간담회에 갔을 때 직접 겪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 우리나라는 처음 만났을 때 주로 나이를 공개하고 연장자가 대우를 받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초면에 서로의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의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단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몇몇 교환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환학생의 주된 목적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지만 수업을 열심히 듣는 타인에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예시로,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를 벌이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외국인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밤에 도서관 앞에서 차칫 소란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A부터 F까지의 성적을 학점으로 부여받지만, 교환학생은 나라에 따라서 pass/fail로 학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환학생들이 학업에 조금 더 열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시각중점기술소통’ 과목에서 독일에서는 교환학생 친구가 어느 날 근처의 병원을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갈만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제 학생들은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언급은 해주면서 정작 아플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대 병원 이외에도 주변에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서 살거나 혼자 지내는 국제 학생 특성 상 병원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학사가 비교적 비싸고 대청소 기간에 국제 학생들이 살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국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학교 기숙사는 화흥관과 국제 학사 뿐입니다. 이 중 국제 학사는 다른 기숙사의 거의 2배에 가까이 비쌉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길어야 1년을 거주할 텐데 학교 근처의 원룸을 구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살 텐데 이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또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학 중에 실시하는 대청소 기간에는 국제 학생들이 마땅히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나가야 하는 대청소 기간에 한국 학생들은 주로 본가에서 머물지만 국제 학생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적습니다.

몇몇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지만 그 수도 적을 뿐더러, 가끔 교수님들께서 영어 수업이라고 하시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심합니다. 한국어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언어로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적응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더 많은 영어 강의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학생들이 손쉽게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유학생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티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이 필수적인데, 멘티 학생이 파워포인트 설치 방법을 몰라서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한국어에 취약한 국제 학생들에게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

시로, 한국어 문화라는 과목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소감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국어 문화 과목은 수강 대상이 외국인일 텐데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과제를 수행해오라고만 했습니다. 국제 협력처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찾아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 멘토링을 알게 된 것은 관심을 갖고 공지사항을 찾아봤기 때문인데,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과 연결되는 더 많은 수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국제 학생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들을만한 한국 문화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추가합니다.

한국인 학생 친구를 사귀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합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병원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화흥관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 기숙사를 추가하거나, 원룸이나 고시텔 등과 제휴를 맺어 대청소 기간에 제공합니다.

한국어로만 개설된 강의에 대해 튜터링 제도를 만듭니다. 영어 강의를 없지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물리나 화학 등의 강의에 대해, 소규모 멘토링 형식이 아닌 강의 형식의 대규모 튜터링 제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멘토링 제도는 소규모로 진행되어 멘토 학생의 수준이 제각각 다르고 양질의 멘토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튜터를 선발하여 강의 형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면 더욱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無名(대학원생)

교환학생제도의 단점

교환학생 제도는 친선과 문화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나라의 대학 사이에 서로 학생을 보내어 유학키는 제도이다. 본교를 포함한 국내의 대학들은 모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낸 제도지만 그 한계와 장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은 국외 학교에 1학기를 다니며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외생활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제도의 혜택을 본다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의 학점 등급은 본교와 다르기 때문에 학점 등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 예를 들면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과목은 본교에서 pass/fail로만 인정되어 본교에서 수강하는 동일 과목에 비해 학점을 얻기 쉬운 허점이 있다. 실제로 전공수업을 들으며 많은 교환학생을 만나봤지만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시험성적이 좋았던 교환학생은 드물었다. 이는 교환학생이 포함된 강의가 학점을 얻기 쉽다고 판단되어 동일과목이더라도 교환학생이 더 많이 수강하는 반으로 이동하는 본교 학생들이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하는 두 대학 사이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학점을 인정하는 학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환학생제도의 장점 및 개선요구사항

교환학생 제도가 단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대학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은 국외로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영어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극히 드물다. 국내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시험도 최근에서야 영어회화능력을 중요시 여겨 영어회화 시험을 만들었지만 사실 실용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유학을 온 교환학생들과 본교 학생들의 소통은

영어회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교환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능력을 기를 수 있고 서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능력과 견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환학생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전공 수업을 같이 들으며 그저 수강생으로서 만난 경험도 있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취미활동을 교류한 경험도 있다. 이때, 두 경험의 차이는 극명했다.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교환학생들은 단지 수강을 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 있을 뿐이지 본교 학생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수업 외에 특별한 활동을 통하여 만난 교환학생들과는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여러 교환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교환학생제도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본교학생들과의 교류기회였다. 수업에서 만나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닌 별도의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사실 본교에서 교환학생과 본교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교 동아리나 단체에서 교환학생과 본교학생들이 만나 교류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체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단체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 이런 만남의 장은 수업 외적으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에 교환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학우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수강했던 과목은 토론학습 형태로 이루어졌고 토론시간에 교환학생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차이와 정보교류를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시간을 따로 맞추어 만나는 것이 아닌 정규 수업시간에서 1학기동안 꾸준히 만나야하는 교환학생친구와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수업 특성상 토론이 아닌 이론학습을 위주로 하는 과목일지라도 교환학생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교 학생과 교환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잊혀진 병, 결핵

의학과 호흡기내과학교실

신 승 수

늘 피곤이 따라오는 연초의 어느 금요일 오후 외래진료 때의 일입니다. 그 전 해 말에 제게 입원했던 결핵환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이지만 방치된 오랜 당뇨와 합병증 탓인지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지요. 입원할 땐 이미 결핵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상태였고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거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 있었죠. 어렵사리 결핵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후 퇴원시켜 드렸었지요.

외래 진료 날, 환자의 아내가 축 처진 남편을 힘들게 부축하며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오네요. 환자의 얼굴은 언뜻 보기에 더 안 좋아 보여요. 알고 보니 퇴원 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네요. 다른 가족 없이 부부 단 둘이만 사는데 아내는 생활을 책임져야 하느라 밤에만 집에 있고, 환자는 스스로 약을 챙기지 않았던 거지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본 아내는 겁이 나서 남편을 이끌고 온 것이구요.

직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지난번에 비해 결핵은 더 진행해서 꽤 참아 보이는 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함께 방치한 당뇨 탓에 혈당은 400에 육박. 당장 다시 입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입원장을 내어드린 얼마 후 아내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네요. 남편이 한사코 입원을 안 하겠다 고집을 피운다면, 약을 처방해주면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한다면서.

집에 가면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약을 안 먹을게 십중팔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만이 아니라 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기에 다시 남편을 불렀어요.

속상해 우는 아내를 옆에 두고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네요. 사는게 힘들어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요. 결국 더 힘들면 오겠다 말을 듣고 이게 헛말이란걸 알면서도 속는 맘으로 약을 처방했네요.

남편을 먼저 진료실에서 내보낸 후 제 앞에서 훌쩍이던 아내는 남편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쥐고 있

던 돈 3만원을 흘려서 집에 갈 차비 하나 없다며 버스타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네요. 얼마가 필요하시냐 여쭙니 5천원이면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던 걸까요? 지갑 안에는 마침 뺏뺏한 5천원권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더 드리고 싶었지만 쑥스럽게도 당시 제 지갑 안에는 그 5천원권 한 장만 담겨 있었어요. 돈을 건네면서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자가 흔한 결핵의 경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결핵을 진단받고 큰 어려움 없이 완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전히 결핵은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날끔한 콧날, 창백한 얼굴에, 가슴속에서부터 치밀어오는 선홍색 피를 뱉어야만 소위 배운 사람 취급을 하던 지난 세기 결핵범람의 시대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6천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생깁니다. 슬프게도 위의 예처럼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이도 매년 2천500명에 달합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가는 와중에 아직 결핵이 더 흔한 주변나라에서 취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서 새로운 환자도 늘어납니다. 특히 법적인 신분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특성상 자꾸만 음지에 머물면서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보다 8배나 많다는 북한의 결핵입니다.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결핵대응은 국제적인 지원 없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은 훌쩍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남북간의 본격교류의 시대를 상상해본다면 북한의 결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식

교수회 소식

2018학년도 교수회 총회 개최



지난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종합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의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교수님 86분이 참석해 주셨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교수회 김대중 총무의 사회로 정기총회는 시작되었으며, 정영기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교수회 활동사항에 대한 발표 후, 2년 간의 교수회 의장 임기를 마친 정영기 교수님의 퇴임사 및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패는 2019년부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김상배 교수님이 전달 하셨으며, 신임 의장 인사말로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보고 사항 -

- 1) 2018학년도 교수회 사업 보고
 - (1)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 개최
 - (2) 교원 임면권 정관 개정 관련
 - (3) 차기 교수회 의장 및 감사 선거
 - (4) 기타 사업 보고
- 2) 감사 보고

- 논의 사항 -

- 1) 현장 발의 의제

한 해 동안 교수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매 학기 1 회씩 개최하는 신임교원 환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산 가을산행과 김호섭 전임 교수회 의장 정년퇴임식 개최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 사항에 이어 교수회 감사이신 윤호섭 교수님의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교수회 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됩니다. 교수회 정기총회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정기총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최영화(편집책임),
김상배, 김종식, 노명우, 양희석, 윤호섭